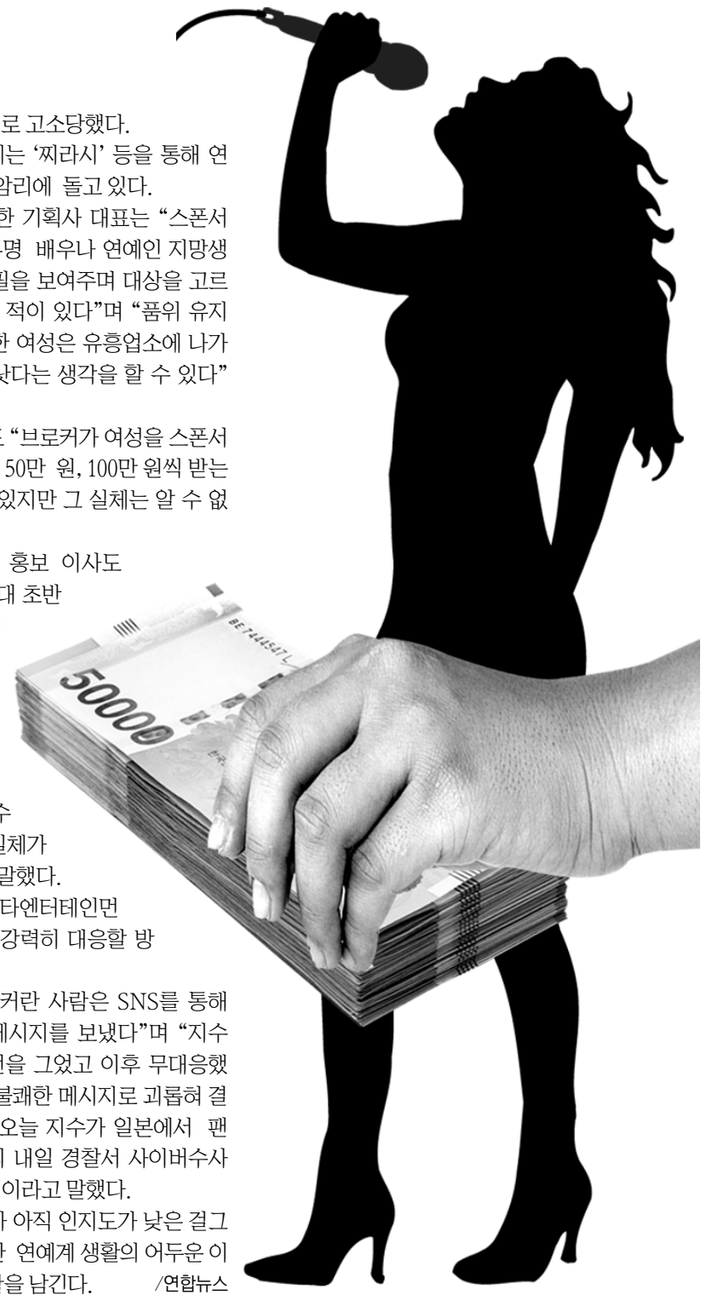
연예계 스폰서 괴담 실체 드러나나

걸그룹 타히티의 지수 "스폰서 제안 받았다" SNS 폭로
제2의 장자연 사태 우려 … 소속사 측 "강력 대응할 것"



걸그룹 타히티의 지수(22)가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해 풍문으로 돌던 스폰서 실체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지수가 지난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자신을 스폰서 브로커라고 소개한 사람은 '고급 알바'라며 "한 타임 당 200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답이 없자 "400?(400만원?)"이라고 더 올린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실체가 있는 브로커의 스폰서 제안인지, 스토커 수준의 누리꾼 장난인지 진위는 알 수 없지만 활동 중인 걸그룹 멤버에게 이런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보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예계에서 일명 '스폰서'란 재력가가 여성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고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통 신인 연기자, 무명 가수, 연습생 등이 유혹의 표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 연예인과 재력가의 스폰서 관계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으로 언급되면서도 실체가 확인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 2009년 탤런트 고(故)장자연이 자살 직전 '성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긴 것이 알려진 후 출처 불명의 '찌라시'에는 여성 연예인들과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장자연 리스트'로 오르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도 검경 수사로 이어졌지만 성상납 강요와 사회 유력 인사들의 연루 등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현아도 지난 2011년 스폰서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SNS에 공개해 주목받았다.

그는 "순수 스폰서가 아닌 매춘에 의한 스폰서 없이 배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아는 매니저로부터 영향력 있는 스폰서를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도 지난 2013년 방송에서 성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제안을 했다고 거론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렇다 보니 연예계에는 '찌라시' 등을 통해 연예인의 '스폰서'설이 암암리에 돌고 있다.

매니저 경력 25년의 한 기획사 대표는 "스폰서 브로커가 재력가에게 무명 배우나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들의 활동 프로필을 보여주며 대상을 고르라고 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며 "품위 유지를 위해 경제력이 필요한 여성은 유흥업소에 나가 얼굴이 팔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배우 기획사 대표도 "브로커가 여성을 스폰서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음반기획사 홍보 이사도 "요즘 가수들은 10~20대 초반으로 어린데다 기획사에서 숙소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해줘 활동 중인 아이돌 가수에게 이런 제안은 사례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수에게 접근한 브로커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놀랍다"고 말했다.

지수의 소속사 드림스타엔터테인먼트는 스폰서 제안 글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소속사는 12일 "브로커란 사람은 SNS를 통해 지수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수가 '이러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고 이후 무대응했지만 수십 차례에 걸쳐 불쾌한 메시지로 괴롭혀 결국 공개적으로 알렸다. 오늘 지수가 일본에서 팬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니 내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히 지수가 아직 인지도가 낮은 걸그룹 멤버란 점에서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 듯해 씁쓸함을 남긴다. /연합뉴스

리암 니슨 한국 상륙

영화 '인천상륙작전' 촬영 … 이정재·이범수와 호흡

배우 리암 니슨(64·사진)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영제 OPERATION CHROMITE) 촬영차 전날(11일) 한국에 입국했다.

리암 니슨이 영화 홍보차 내한한 적은 있었으나 영화 촬영을 위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2주로 예정된 촬영 기간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W서울워커힐 호텔에서 묵는다.

생애 첫 한국영화에 도전하는 리암 니슨은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역을 맡아 이정재, 이범수, 진세연, 정준호 등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영화는 맥아더 사령관과 인천상륙작전에 선행된 엑스-레이(X-RAY) 특수 첩보작전에 투입된 켈로부대원 8명에 대한 이야기다.

또 이 영화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이 아빠'로 유명해진 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영화 '인터뷰'(2000)를 끝으로 은퇴한 심은하의 두 딸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포화 속으로'(2010) 등을 연출한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연합뉴스

김소연 '가화만사성' 출연

"마음에 꼭 맞는 캐릭터"

김소연

김소연은 다음달 첫선을 보이는 MBC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에서 13년차 주부 봉해령 역을 맡는다고 홍보사 더틱톡이 12일 밝혔다.

'가화만사성'은 차이나타운 최대 규모의 중식당인 가화만사성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봉씨 일가의 이야기로, 김소연이 연기하는 봉해령은 봉씨네 집안의 장녀다.

홍보사는 "봉해령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휘몰아치는 주변 사건들로 인해 파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은 "캐릭터에 흠뻑 빠져 시놉시스와 대본을 단숨에 읽었다"며 "정말 마음에 꼭 맞는 캐릭터여서 놓치면 안될 것 같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화만사성의 주인 봉삼봉 역에는 김영철이 캐스팅됐으며, 봉삼봉의 부인 역으로 1980~90년대 인기 배우 원미경이 거론되고 있다. 원미경이 출연을 확정하면 2002년 '고백' 이후 14년 만에 연기에 복귀하게 된다. 드라마는 '엄마' 후속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
11	30 아내가 뿔났다	00 방학특선다큐 〈운동장 프로젝트〉(재)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2015〉(재)	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50 SBS12뉴스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재)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2		00 제7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25 영상앨범 산(재) 55 튼튼생활체조(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KBS 목포 신년 특별대담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80세 청춘의 비밀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11	00 신년특집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KBS 신년특선 〈북극 대여정 백야의 땅 13,000km〉	10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05 희망로드 대장정 스페셜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한국음악기행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야옹멍멍 귀여워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절대비법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육류 가공 공장〉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21:30 한국기행 〈영덕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장서방의 특별한 꿈〉
21:50 EBS 다큐 프라임 〈위대한 로마/불멸의 마야〉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야수와 미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3일(음 12월 4일 甲午)

子 48년생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60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대범하게 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84년생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7, 77

丑 49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옳다. 61년생 어떠한 시세로 변할지 모르니 지금 확실히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85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 46

寅 50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62년생 안전 점검에 관한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74년생 속단한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86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3, 25

卯 51년생 각별히 신경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3년생 힘써 왔던 바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75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87년생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59, 49

辰 40년생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52년생 당래지사와 결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64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76년생 아침의 상황이 저녁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88년생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자. 행운의 숫자 : 16, 27

巳 41년생 중차대한 일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53년생 충격적일 것이다. 65년생 이해득실을 떠나서 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77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89년생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28

午 42년생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54년생 합리성과 능률적인 면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66년생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78년생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2, 18

未 43년생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징후를 무시하거나 연기한다면 봉패하게 된다. 55년생 대비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67년생 바로 그것이다. 79년생 권유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85, 62

申 44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목전의 현실에만 집중하자. 56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68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80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게 되는 우를 반복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56, 72

酉 45년생 번거로움이 상당할 것이니라. 57년생 머지않아서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69년생 전체의 입장을 두루 감안하자. 81년생 집착하다 보면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9, 80

戌 46년생 꼭 이행해야 할 바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자. 58년생 비결은 따로 있느니라. 70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자제하는 것이 유익하다. 82년생 보고도 차지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겠다. 행운의 숫자 : 33, 88

亥 47년생 자연히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진행하여라. 59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시기이다. 71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83년생 일득일실 하리라. 행운의 숫자 : 73,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